

【問】貴支局の所下數は、二、滿、郵便切手、

之地
院
【問】小
本
한
나
最
通
價
【答】
다
駿
아
【問】

나면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Vertical text column on the far right)



智異山登攀記 (三)

崔基應

우리는 七佛庵을 나서... (Main body text of the mountain climbing story)



智異山

政治, 六判官가... (Continuation of the story or related text)

원인의 평균身長보다 若干...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middle section)



現代朝鮮女流文學

選集 朝鮮日報社出版部編輯... (List of modern Korean female writers and their works)

次 次 次 次 次 次 次 次... (Continuation of the literary list)

【問】本市內北阿爾明山... (Interview questions and answers about local matters)

의 學者가 여러가지 說을...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bottom section)

家(小説)外隨筆二篇... (Text about literary collections)

▲活果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 (Publication information for 'Hwag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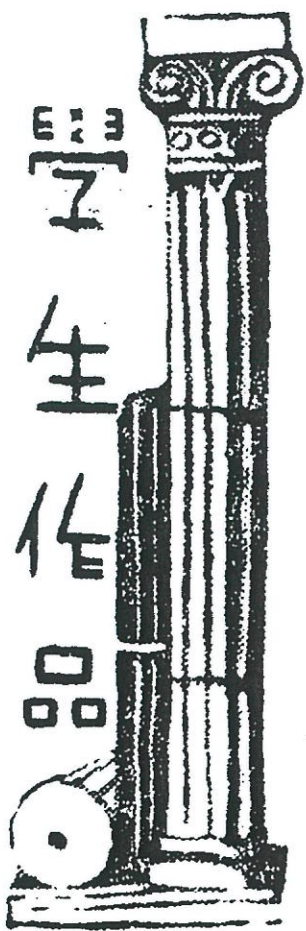
【問】本市內仁寺町... (Continuation of the interview section)

大勳氏는 作品中의 性格에 더
무 多情多感하였다는點에서나
는 좀더 殘忍하였드면 하고
싶다.

그러나 小說 『純情海峽』의
하個의 長篇抒情詩와 같다。 事
實에對한 科學的發見이나 描
寫보다 하個의 感激된 浪漫
의 世界를 形成하였고 따라
서 作品의 感性이 讀者의 感
受를 哀戀하게 끌고가는 作
品이다。(發行所 京城府堅志町
漢城圖書株式會社 定價一圓五
十錢)

(四)

雀基愿



筋肉等 모든지것이 가엾고 불
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
의 열심에는 알수없는 仁慈한
빛을 볼수가 있었다. 그들은 칼
한다. 『서울은 求景이 조코 滿洲
는 살기가 조롭디다! 이곳도 애
초는 땅이 넓고 곡식이 잘된
대서 새로운 希望과 뜨거운理
想을 가지고 드려왔다가 一年
을지내고 보니 家族은 만코돈
은 없고 다시 世上을 차저나갈
래야 그럴힘조차 없서 허는수업
시 이곳에 부러있다우! 멋저다
해나사남지안하면 겨우連命이나
하고 그리치못하면 끼드배노흔
날이 한두날이 아니라우! 그래
두 해마다戶稅나 地稅나 教育
費나 무어니 무어니해서 내일
머나먼 山길에 무거운甘藷를지
고 나간다우! 이런서러운데가어
데잇수! 이런답답할데가 어데잇
수! 조흔世上을 求景도 못하고
하며 그들은 서울을 보고시퍼
하고 滿洲를가고 시퍼한다. 그
러나 우리는 어안이뵈뵈하야그
들에게 充分한慰安을 주지못하

陰謀派の清算 世界の蘇聯觀米
人인문 日蘇漁業關係 隨筆時
評、蘇聯邦海軍諸報等 其他發
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内二丁

었다.
이튿날(二十二日) 새벽 높이떠러
지자 나의머리에는 天王峰(主
峰)이 떠올랐다. 우리의 成敗
는 오날 하루에 달렸다고 生覺할
제 나의筋肉은 움추러들고 精
神이 떨적난다. 午前六時半에朝
飯은 끝났다 門밖을나서니 날
이다새지도 안었다.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하기 짝
이업고 碧空에點點히 白히별들을
은 螢螢시 點點이다. 우리의몸을
은 찬바람으로因하야 暫間동안
에 일어버리었다. 그러나 겨울
으로 말미암아 나는熱은 充分
히 찬바람에 對抗할수 잇섯다
東北으로 向한길을 잡어든지約
四十分이 지나니 오른쪽으로日
岩과 月岩이 구보보이며 同時에
길은 深闊한 密林사이로 드러
가며 東便으로 구부러진다. 이
곳으로부터는 積雪도甚하고 巨
木の씩어넘어진것도 만어서 첫
기에도 매우 困難하다. 大體로
길은 連峰의北麓을돈다. 올너내
리는 變化가 大端히 甚하야 그
다지 갖추지는안다.

午前九時正刻에 우리는 잔돌
(細石)의最高峰에 到着하였다。
잔돌은 正南向의 金山으로 텨
히고 이를그대로의 잔돌이다。
부서져있는 돌들은 마치사람이
일부러 깎쳐놓은것도같다。東西
는 約四키로나되고 南北은二키
로좁되는 橢圓形의盆地이다。樹
木은 하나도 볼수가없고 雜草
만이 茂盛하였는 잔치만을 알
수가있다。멀리 西南端으로는古
刹靈神寺의 옛터만이내려다 보
인다。般若峰、老姑壇等の 雄姿
가보이고 天王峰(主峰)의 壯觀
한貌樣이 눈앞에 각가히 보인다。
九時二十分 잔돌을떠나 如
前히 눈에 밋끄러지고앞에떠가
으며 高山風致가 넘쳐난 枯木
이 만흔 가운데를지나차우뚱이
(재)에 이르니 午前十一時였다
조금더올라니 어름과바위사이
에 서있는 샘(泉)이줄줄 흘러나

川町三ノ一〇 東京朝鮮新報社
振替四六一二〇番 定價一部五
錢

눈이로몸을 식히려니 우리는 밋
 칠빛이 반가웠다. 그업해는 허
 무리진 러만이 남어있다. 이로
 부러는 비탈이 대端하다. 더구
 나 모두가 氷板이 되어있다. 밋
 끄러지고 잡바지며巨木이蒼蒼한
 深林을 버서나니 길은 小峰의
 北麓을 돈다. 눈이길의 넘치도록
 차여있다. 기며 뭉기며 小峰을
 돌아드니 自然의花崗岩으로된通
 天門이雪中에 못치여있다. 天
 王峰에 通하는 門이다. 우리는
 이問을 지나 午前十二時正刻!
 저 天王峰(主峰)을 完全히 征
 服하였나. 그機關우리는 홀이는
 담도 抑制할수업시이는 목소리
 를다하야萬族을 連하야 불렀
 다. 養正의힘있는校歌로 智異山
 上的 넓은虛空을 울리었다.

海拔 一千九百十五米突! 그얼
 마나 높은山인가! 우리가 그얼
 마나 두려워하는 山인가! 우리
 의 宿望은 오늘(二十一日)로서
 遺憾없이 成就되고말았다. 오죽
 智異山絶頂에서만 볼수있는囁語
 한 碧空! 구름구름 업데인 連
 脈들! 或은 酷寒의 嚴冬을或
 은 和暢한芳春을일우고있다.
 우리는마치 最後의勝利를 獲得
 한 霸王과가고 靑雲이업데인連
 脈들은 屈服을드리는것같다. 우
 리의 가슴은限없이버려지고 周
 圍에이는 萬物들이限없이 적어
 버린다



【問】專檢試驗은 어디에서 치르며試驗科目은? 한번에全部를受驗하는지?不然이면 自由選擇하여 몇가지 式인지를任意로受驗할수있는지요(受驗日字는大概何時?)

【答】이事項은 官報에나기는하나다마는 詳細한것은總督府學務局으로 問難하시오 (係)

『血』라고네
여러분
지만實
義인것
잇서
게하고
은 젊
덧는
毒과
날마다
대 이
『瘀血』
하는대
리나價
嘔下劑

前略
기을부
고上氣
狀이
결어도
괴로움
에서

